매년 7월 첫째 주는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산업안전보건강조' 주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2021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가 7월 5일 일산 킨텍스에서 펼쳐졌다. 내·외빈과 유관기관 관계자는 물론 온라인 참석자들이 함께한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글 편집실 **사진** 김지원

2021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행사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

2

1

3

4

1 2 2021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현장
3 기념사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4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백헌기 회장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사업장의 자율적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함께 지킬 안전, 모두 누릴 권리'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는 기념식과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보건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해 보건관리의 중요성과 더 나은 보건관리방안,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을 공유했다.

1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유공자 포상(국무총리표창)을 받는 한진숙 선임차장

2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참석한 참석자들

3 국제안전보건전시회를 둘러보고 있는 백헌기 회장과 안경덕 장관, 박두용 이사장

기념식에는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의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의 기념사, 노·사·정 주요 참석자의 축사가 있었다.

행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정과 유관기관 관계자 대표 50여 명이 참여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20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협회에서는 제주산업보건센터 한진숙 선임차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산업부터 일상까지 안전하게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국내외 120여 개 안전보건제품 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올해 38회째로 2021년 산업안전 보건강조주간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회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의 안전보건책임이 강화되면서 많은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했다. 전시회에는 안전, 보건, 건설, 작업환경개선, 환경, 위생, 방역, 소방 등 안전, 보건과 관련된 1만여 점의 신제품 및 신기술이 전시됐다.

협회 부스에서는 여름철에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식재해 관련 전시물을 통해 질식재해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 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을 레고 등의 장난감으로 쉽게 표현해 많은 이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중요해진 개인위생을 강조하기 위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비치해 관람객들이 자율적으로 손 씻기를 할 수 있게 했다.

1 협회의 부스에 방문해 손을 씻고 있는 안경덕 장관

2 2021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식선언에 이어 커팅식을 하고 있다

3 왼쪽부터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4 협회 부스에 설치된 질식재해현장 위험을 알리는 미니어처